

관계형성역량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분석

강신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식재산학과 교수)*

서정운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조교수)**

김명종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조교수)***

국 문 요 약

창업 도전기, 성장기, 도약기, 성숙기에 관계없이 성공한 창업가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도전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역량도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정도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대학의 창업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은 여타 학문의 개론과 같이 창업의 개론처럼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여러 역량 중에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부분을 고려하여 관계형성역량을 재 정의하고 관계형성역량 정도에 따라 창업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 창업가와 창업의도가 전혀 없는 그룹간의 관계형성역량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관계형성역량이 창업가에게 중요한 역량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도전성, 혁신성, 자율성, 위험감수성 등으로 대표 되는 기업가정신 외에도 창업과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하며 창업과 관계형성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창업 교육에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대인관계역량, 창업 교육, 창업의도

1. 서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대학은 199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의 주도로 진행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지정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다. 대학은 타 기관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비롯하여 유무형 자원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는 10개 대학(1997년)이 지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는 12개 대학(1998년)이 지정을 받아 해당 조직이 설립 되었으며(하상조, 2000), 2006년도에는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가 창업보육센터로 통합되었고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전체 261개의 보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그중에 대학소속의 창업보육센터는 192개소이다. 대학 소속의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인적자원과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

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은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창업동아리’ 제도를 운영하고 창업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창업 관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지안·안영식, 2019).

대학의 창업관련 역할은 크게 기술과 경영부문의 지원 및 자문, 창업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 대학의 창업 교육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과 특허, 인허가 분야 위주의 창업 교육이 비교과 및 특강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15개의 ‘창업선도대학’은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대학의 창업관련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율·특화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창업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황보윤·양영석(2012), 최종민·양영석(2012), Lee et al.(2013)은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은 2012년 61개의 대학이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업 교육센터(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창업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중소벤처기업부와

* 주저자,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식재산학과, sskang@cku.ac.kr

** 공동저자, 조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simonso@cku.ac.kr

*** 교신저자, 조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manova@cku.ac.kr

투고일: 2019-11-04

수정일: 2020-01-12

수정일: 2020-02-10

계재확정일: 2020-02-19

교육부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다수 대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비교과 창업 교육 및 창업 특강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관련 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개설, 대학(원)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면서 대학은 대학 내 창업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창업분위기 활성화 노력은 ‘대학 알리미’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대학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포함하여 156개 대학에서 2,729개 창업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해당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172,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난 2018년에는 176개 대학에서 7,542개 창업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해당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271,2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업 교육의 양적 증가에는 정부주도의 대학평가 항목으로 창업 교육이 포함됨에 따라 양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현 상황에서 대학이 창업관련 비교과 및 특강, 창업정규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설한다는 점과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의 양적성장에는 창업 교육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은 McMullan & Long(1987)과 이장우·장수덕(1999)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일본의 경우 1938년 고베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처음 개설하였으며, 미국은 1945년 하버드 대학을 시작으로 1980년대 밥슨대학이 학부 전공으로 개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창업 교육 확대의 이유를 “국가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합의의 결과이다”(Birch, 1987, Matlay & Westhead, 2007, Vanevenhoven, 2013, 이우진·황보운, 2015 재인용). 라는 주장과 함께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안태욱·박재환(2018)이 언급한바 창업 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재석·이상명(2015)과 주암·윤형중(2018)은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 교육과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대학 창업 교육이 국가경제와 더불어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 교육의 질적성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가 2018년에 발표한 “2018년 대학 창업 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은 창업 교육의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2018년 5월에 배포된 ‘대학 창업 운영매뉴얼 3.0’에 제시된 실천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 계획서 작성을 중심으로 회계(세무), 마케팅 등의 경영학 기반의 기획 및 운영, 관리 과목과 지식재산권의 생성과 보호 등의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또는 사업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역량이 자명하다. 그러나 경험적 관점에서 경제와 시장은 다양한 주체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주체 간의 협업과 경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이루기 위해 각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창업 교육에 포함함으로써 창업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와 경제 그리고 개인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업 교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성공을 위한 창업활동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주체 간의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관계형성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관계형성역량 정도에 따라 창업의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 창업가와 창업의도가 전혀 없는 그룹간의 관계형성역량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관계형성역량이 창업가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II. 대학의 창업 교육 분석

2.1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 현황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이 2019년 현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비즈쿨을 비롯하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창업학부 또는 창업전공이 개설되어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관련 학과 및 전공을 개설하여 진행되는 창업교육과 창업선도대학이 운영하는 창업강좌 교과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진행되는 창업교육 교과목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관련 학과 및 전공의 교과목과 창업선도대학에서 개설한 창업교과목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교과목은 한주희·고연정(2007)은 미국대학 학부 과정의 창업학 교육과정 분류표를 기초로 대분류 항목인 창업개론, 환경분석 및 창업준비, 기업가정신, 창업경영 및 전략, 분야별 창업, 사례연구 및 세미나로 구분하였으며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창업교양”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2 4년제 대학의 창업교과목 분석

4년제 대학에서 창업관련 학과(전공)에 개설된 창업 교육 교과목 현황은 대학 알리미의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결과 창업관련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문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하여 총 56개 대학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대학에서 총 71개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25개 대학의 71개 학과(전공)의 표준분류계열의 대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7개(68.0%)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계열이 2개(20.0%), 자연과학계열이 2개(8.0%), 예·체능계열이 1개(4.0%)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 대상인 11개 학과 및 전공의 표준분류계열의 대분류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8개(72.7%)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계열이 2개(18.2%), 자연과학계열이 1개(9.1%)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관련 학과(전공)를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과목을 학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11개 대학의 교과과정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창업관련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총 387개 과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관련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목 중에서 165과목(42.6%)이 분야별 창업과목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창업경영 및 전략(68과목, 17.6%), 환경분석 및 창업준비(56과목, 14.5%) 창업개론(34과목, 8.8%), 사례연구 및 세미나(33과목 8.5%), 기업가정신(25과목, 6.5%), 창업교양(6과목, 1.6%) 순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표준분류계열별 창업학 교육과정 분류에 따른 비중은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이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전체 창업교과목이 분야별 창업 교과목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관련 학과(전공)를 신설하고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융합의 관점보다는 개설된 단과대학의 표준분류계열의 영향을 매우 높게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과학계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이어 공학계열 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와 관련된 교과목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에서 개설되었으나, 이는 경영학의 인적자원의 관리 개념으로 접근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역량의 함양과 강화의 관점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창업교과목 중에 네트워크의 형성 및 활용과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거나 강화하는 교과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2.3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교과목 분석

창업선도대학이 운영하는 창업교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co.kr>)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2017학년도 1, 2학기에 개설된 창업강좌 교과목으로 총 414개 창업교과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선도대학에서 2017학년도 1, 2학기에 개설된 414개 교과목 중에서 분야별 창업과목이 109개(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창업개론(82개, 19.8%), 창업경영 및 전략(69개, 16.7%), 환경분석 및 창업준

비(64개, 15.5%), 기업가정신(59개, 14.3%), 사례연구 및 세미나(21개, 5.1%), 창업교양(10개, 2.4%)의 순의 비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4년제 대학의 창업교과목 분석과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학 교육과정의 대분류 항목 간 강좌개설의 비중 차이가 다소 완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창업선도대학의 경우 특정 학과(전공) 소속의 학생이 아닌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진행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창업선도대학의 창업교과목도 4년제 대학의 창업교과목 분석에서와 같이 창업자의 관계형성 및 활용과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거나 강화하는 교과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III. 이론적 배경

3.1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

Fishbein & Ajzen(1975)은 어떠한 행동을 위해 필요한 선행과정 중 하나로 의지 또는 의도가 중요한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sion)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 또는 창업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실천적 의도는 주관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인식 이후에 강력한 자기 통제 하에 진행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Ajzen & Fishbein(1980)은 이를 계획적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Shapero & Sokol(1982)과 Krueger Jr. & Brazeal(1994)는 창업 이벤트 모형(Shapero's Entrepreneurial Event Theory: SEE 또는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 MEE)을 통해 창업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창업 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의도(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홍(2012)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된 주요 요인을 배경요인과 개인요인 그리고 상황요인으로 구별하고 이를 창업의도(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요인 모두 창업의도(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의도(의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 중 “창업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수요”는 창업 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준환(2014)의 연구에서도 창업 교육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와 더불어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창업 교육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변충규·하환호(2018)는 기회인식 요인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기회인식에 대한 창업 교육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창업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창업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옥희 외(2017)는 창업 교육에 따라 창업성향과 창업의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적통제성향과 우연에 의한 통제성향, 혁신성향을 가진 학생은 창업 교육을 통해 보다 강한 창업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험감수성향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 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김태경(2019)의 연구도 대학의 창업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창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Event)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 교육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현 창업 생태계를 고려하고 실전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창업 교육의 콘텐츠 개발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보다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2 대상별 창업 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창업 교육에 대한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선행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천수경·정화영(2009)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창업 교육에 대한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 교육은 창업지식과 창업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창업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 이후 약 10년 후에 진행된 양준환·김춘광(2018)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의 연구는 정부 지원 창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이 인지된 관계적 지원과 창업의도,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준환(2014)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직 진로설계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과 대학과 같이 한 학기동안 지속되는 교과과정이 아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교육은 단기적 교육보다는 장기에 걸쳐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김서호·변상해(2016)는 중년기 은퇴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창업 교육에 참여한 집단에서 창업의도가 비참여 집단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창업 교육의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준환·김춘광(2018)에서와 같이 창업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창업 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창업 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 교육 기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3 관계형성과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

관계형성은 인적 네트워크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관계형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Adler & Kwon(2002)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각 분야의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회자본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준환(2014)은 Coleman(1988), Nahapiet & Ghoshal(1998), Manning et al.(1989)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에서 얻는 지원’은 부모, 형제, 친구, 멘토, 창업선배 등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자극하는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양준환·김춘광, 2018,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인태·김우재(2015)는 창업의도에 창업 멘토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양준환·김춘광(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면서 사회적 지원세력인 인적 네트워크는 학생의 진취성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이 보유한 사회적 지원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진취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강화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가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iken & West, 1991). 육창환·전인오(2014)은 창업교육을 하거나 멘토하는데 있어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한다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관계형성의 결과인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관계형성역량은 창업 교육에 하나의 부분으로 인지될 필요가 있다.

IV. 연구방법

4.1 연구가설

대학에서는 다양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효과에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관계형성역량이 기 창업가와 창업의도가 전혀 없는 그룹간의 관계형성역량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관계형성역량이 창업가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실증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관계형성역량 측정 도구는 타당할 것이다.

둘째, 기 창업자와 창업의도가 없는 그룹간의 관계형성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은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으로 자기개방성(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친화성(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의사소통(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공감 및 배려(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로 관계형성은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근영 외, 2016).

성은모 외(2015)의 연구를 기초로 관계형성역량의 4개 하위요소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를 설정하고 총 18개의 문항으로 관계형성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관계형성역량의 각 하위영역,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자기개방성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Buhmester et al.(1988)의 ICQ(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척도, 이석재 외(2003)의 생애능력측정도구, 한국교육개발원(2006)의 리더십 검사도구, 김경화(2016)의 대학생 생애핵심역량 등에서 밝힌 관계형성 관련 문항을 참고하였다.

아래의 관계형성역량 측정 도구와 함께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묻는 문항과 창업여부, 미 창업자 경우 창업계획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1> 관계형성역량 측정 문항

관계 형성	문항 내용	주요 출처
자기 개방성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Buhmester et al.(1988)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친화성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Buhmester et al.(1988), 이석재 외(2003)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의사 소통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김기현 외(2009)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이석재 외(200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공감 및 배려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Buhmester et al.(1988), 이석재 외(2003)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나의 생각이 달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4.3 조사방법

창업동아리 활동하는 대학생과 창업 경력이 3년미만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18년 5월 강원 영동 지역 대학생 창업캠프에 참여한 5개 대학 61명, 2017년 10월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참여한 7개 대학 80명, 2017년 9월 강원 영동지역 대학생 창업캠프에 참여한 5개 대학 63, 2017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자 37명, 2017년 9월 보육센터 입주 기업 대표 10명, 2017년 11월 강원도 창업 혁신 캠프에 참여한 강원지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 5개 창업 지원 기관에 소속된 기업 대표 31명, 총 282명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측정도구는 대학에서 관계형성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응답자 중 대학생 184명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창업의도에 따른 관계형성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V. 연구결과

5.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 209명(74.6%), 여성71(25.4%)이며,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 200명(71.7%), 30대 26명(9.3%), 40대 27명(9.7%), 50대 이상 26명(9.3%)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9명(3.3%), 대학생 189명(68.5%), 대졸 49명(17.8%), 대학원생 7명(2.5%), 대학원 이상 22명(8.0%)이며,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71명(25.7%), 이공계열 159명(57.6%), 예체능계열 24명(8.7%, 기타 22명(8.0%)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 기피 이유로는 창업자금 부족 95명(33.8%),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87명(31.0%),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취업 선호 45명(16.0%), 창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부족 35명(12.5%), 창업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 19명(6.8%) 순으로 조사 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09	74.6
	여성	71	25.4
연령	20대	200	71.7
	30대	26	9.3
	40대	27	9.7
	50대 이상	26	9.3
학력	고졸이하	9	3.3
	대학생	189	68.5
	대졸	49	17.8
	대학원생	7	2.5
전공 계열	대학원 졸 이상	22	8.0
	인문사회계열	71	25.7
	이공계열	159	57.6
	예체능계열	24	8.7
직장 여부	예	34	12.5
	아니오	239	87.5
창업 기피 이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87	31.0
	창업 자금 부족	95	33.8
	창업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	19	6.8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취업 선호	45	16.0
	창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부족	35	12.5

5.2 관계형성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0.4 이상,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KMO(Kaiser -Meyer-Olkin)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고 최소 0.5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관계형성역량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18개의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는 성은모 외(2015)이 제시한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일치하고 있다. KMO계수는 0.912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Bartlett's 구형성 검정은 1572.695이고 $p < .001$ 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이 자기개방성(0.805), 친화성(.824), 의사소통(.847), 공감 및 배려(.779)로 0.7이상으로 적절하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63.957%로 나타났다<표 3>.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s α	Cumulative % of Variance
자기 개방성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737	2.498	.805	63.957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814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81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640			
친화성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747	3.369	.82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771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753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613			
의사 소통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723	2.671	.84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795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497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56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	.503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412			
공감 및 배려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00	2.974	.779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668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745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817			

EFA Model Test: KMO=.91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572.695(df=153), $p < .001$

이후, 전체 연구 단위들에 대한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Factors	Items	Standardized λ	S.E	C.R.	p
자기 개방성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0.810	-	-	$p<.00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0.724	0.086	10.041	$p<.00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써 행동한다	0.834	0.086	11.65	$p<.001$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0.551	0.103	7.345	$p<.001$
친화성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0.672	-	-	$p<.001$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0.758	0.113	8.69	$p<.001$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제안하기도 한다	0.755	0.111	8.666	$p<.001$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0.757	0.111	8.682	$p<.001$
의사소통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0.672	0.142	8.005	$p<.001$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0.628	0.124	7.543	$p<.00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0.661	-	-	$p<.001$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0.726	0.138	8.539	$p<.00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	0.696	0.159	8.242	$p<.001$
공감 및 배려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0.768	0.134	8.948	$p<.001$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0.736	-	-	$p<.00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0.733	0.129	8.851	$p<.001$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0.608	0.124	7.448	$p<.001$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0.656	0.116	8.009	$p<.001$

$\chi^2=228.529(df=129, p<.001)$, $\chi^2/df=1.772$, GFI=.877, AGFI=.837, CFI=.933, RMSEA=.065, NFI=.860, IFI=.934, RMR=.04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적합도 지수는 $\chi^2=228.529(df=129, p<.001)$ 로 모형적합도가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χ^2 검정의 경우 표본 수 및 자유도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의미하는 RMSEA=.065로 임계값인 .08이하로 나타났으며(Byrne, 2001), GFI=.877, CFI=.933, NFI=.860, IFI=.934, 로 기준값인 .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hi^2/df=1.772$ 로 3이하의 값으로 적합도를 만족시킨다 볼 수 있다. 각 구성개념에 대하여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관측변수에 대

한 표준화 요인부하량(λ)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551이상으로 .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지수)는 기준치 0.5 이상으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ormell & Larcker, 1981), CCR(Composit reliability values: 개념 신뢰도)는 기준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지지되었다 (Anderson & Gerbing, 1988).

<표 5> 상관계수, 개념 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지수

Factors	CCR	AVE	자기 개방성 (r^2)	친화성 (r^2)	의사소통 (r^2)	공감 및 배려 (r^2)
자기 개방성	.843	.578	1			
친화성	.828	.547	.576*** (.332)	1		
의사소통	.883	.557	.612*** (.374)	.659*** (.434)	1	
공감 및 배려	.823	.540	.481*** (.231)	.470*** (.221)	.647*** (.418)	1

** $p<.001$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관계수 제곱값(r^2)과 AVE값을 비교하였다. 각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값은 모두 AVE값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5.3 창업의도에 따른 관계형성역량의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는 창업동아리 참가 학생(241명) 및 보육센터 입주 대표 등(41명)을 통해 창업의도를 분류한 결과, 창업자 68명, 창업계획이 없는 대상 28명, 창업계획이 있는 대상 185명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의도에 따른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도에 따른 관계형성 및 관계형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결과 자기개방성의 경우 창업계획이 없음(3.96)과 기 창업자(4.3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에서는 창업계획 없음, 창업계획 있음과 기 창업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를 통합한 관계형성역량은 각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창업의도 구분에서 창업의지가 없는 집단 보다는 창업의지가 있는 집단이 관계형성역량이 높으며, 창업의지가 있는 집단보다 기 창업자에서 관계형성역량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관계형성역량은 창업의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형성역량이 높을수록 창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진다.

<표 6> 창업의도에 따른 관계형성역량의 차이검정

관계형성	창업의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수준	사후 분석
자기 개방성	창업계획없음	28	3.96	0.78	5.683	.004	a<c
	창업계획있음	185	4.01	0.72			
	창업자	68	4.35	0.71			
친화성	창업계획없음	28	4.09	0.74	9.639	<.001	a,b<c
	창업계획있음	185	3.75	0.81			
	창업자	68	4.12	0.85			
의사소통	창업계획없음	28	3.74	0.70	8.673	<.001	a,b<c
	창업계획있음	185	3.96	0.66			
	창업자	68	4.28	0.66			
공감 및 배려	창업계획없음	28	3.68	0.78	8.356	<.001	a,b<c
	창업계획있음	185	4.00	0.67			
	창업자	68	4.27	0.64			
관계형성	창업계획없음	28	3.69	0.58	12.018	<.001	a<b<c
	창업계획있음	185	3.94	0.58			
	창업자	68	4.26	0.55			

V. 결론

창업 이슈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대학생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에게 보다 높은 창업의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대학의 의무이며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창업 교육은 피교육 대상에 상관없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의 창업의도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양질의 새로운 창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창업의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는 본 연구 결과처럼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능력,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역량을 키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역량은 창업의도 뿐만 아니라 창업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창업가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관계형성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는 창업 교과목 중 인적 네트워크나 관계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창업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있다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업 교육에 관계형성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형성역량을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가?와 교육을 통해 관계형성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것이 창업의

도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가? 또한 관계형성역량이 실제 창업기업에서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그러나 장성진·연문희(2009)¹⁾의 연구결과는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창업 교육관점에서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창업 교육 교과목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주희·고언정(2007)의 창업학 교육과정 분류표를 기초로 창업전공과목과 창업선도대학 창업강좌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창업교과목 및 창업강좌의 분류를 위해서는 개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등을 통해 교과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했으나, 자료 수집 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그러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둘째, 조사 대상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형성역량과 창업의도와 관계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결론 내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역량이 창업의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된 바 창업 교육에 관계형성역량 배양을 위한 교수법과 학습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창업 교육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창업의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김경화(2016). 대학생 생애핵심역량 분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23(1), 427-447.

김서호·변상해(2016).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6), 71-81.

김태경(2019). 기업이 정신 교육과 창업 의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99-104.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변충규·하한호(2018).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패턴이 기회인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2), 103-123.

성은모·최창욱·김혜경·오석영·진성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안태욱·박재환(2018).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77-192.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65-77.

양준환·김춘광(2018). 청소년이 인지한 관계적 지원, 기업가정신 및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74-97.

유창환·전인오(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1) 장성진·연문희(2009)는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과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 국내 창업 멘토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661-676.
- 이석재·장유경·이현남·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RR2003-15-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우진·황보윤(2015).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창업교육의 특징 분석과 미래 발전방안. *벤처창업연구*, 10(3), 171-183.
- 이인태·김우재(2015).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 지식과 직무 도전성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6(2), 115-133.
- 이장우·장수덕(1999). 미국 4개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2), 57-90.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지안·안영식(2019).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벤처창업연구*, 14(2), 73-82.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근희·이용혜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61.
- 장석진·연문희(2009). 집단일반: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 10(4), 2031-2054.
- 주암·윤현중(2018).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제언. *인적자원개발연구*, 21(3), 161-201.
- 창업진흥원 창업넷(2019). *창업선도대학*. Retrieved 2019.11.10. <https://www.k-startup.go.kr/univ/main/prm/AppointStatusList.do>
- 천수경·정화영(2009). 전문계 고교 창업교육(BizCool)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4(4), 89-114.
- 최옥희·박중희·김남현(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1), 35-50.
- 최종인·양영석(2012). 창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제. *벤처창업연구*, 7(1), 125-134.
- 하상조(2000).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실태분석과 육성방안. *한국국민경제학회*, 9(2), 237-266.
- 한주희·고연정(2007). 창업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26(2), 105-131.
- 황보윤·양영석(2012). 창업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창업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113-123.
- Adler, P. S., & Kwon, S. W.(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Ahn, T. U., & Park, J. W.(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77-192.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CA.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 woof Cliffs, Prentice-Hall.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Birch, D. G W.(1987).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EQS, and LISREL: Comparative approaches to testing for the factorial validity of a measur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1), 55-86.
- Byun, C. G., & Ha, H. H.(2018). The Influence of Behavior Patterns for Opportunity Discovery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03-123.
- Chang, G. Y., Sung, E. M., Choi, H. I., Jin, S. H., Kim, G. H., & Lee, Y. H.(2015).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CCS 2015*.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Chang, S. J., & Yon, M. H.(2009).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Attachment Theory and Its Effec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031-2054.
- Cheon, S. K., & Jung, H. Y.(2009). The Effects of BizCool of Vocational High School on the Understanding of Enterprise Commencement and Biz Cool Outco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4(4), 89-114.
- Choi, J. I., & Yang, Y. S.(2012). Program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25-134.
- Choi, W. H., Park, J. H., & Kim, N. H.(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a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1), 35-50.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 S. J.(2000). The Behavioral Analysis and Operational Strategy of College Venture Incubation Center.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9(2), 237-266.
- Hahn, J. H., & Ko, U. J.(2007).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ship Programs in the Graduate Schools of

- Korea and the U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6(2), 105-131.
- Hwangbo, Y., & Yang, Y. S.(2012). A study for Establishing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enhancing the Expertis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13-123.
- Kim, K. H.(2016). Identifying Undergraduates Students Life Core Competency and Suggesting Strategies to Develop a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427-447.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S. H., & Byun, S. H.(2016). Middle-Age Entrepreneurship Re-Employment Education Influences Re-Employment Anxiety, Re-Employment Str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71-81.
- Kim, T. K.(20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ear to Start-up and Start-up Communities in Cla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99-104.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startup(2019). *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Retrieved 2019.11.10. from <https://www.k-startup.go.kr/univ/main/prm/AppointStatusList.do>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Lee, I. T., & Kim, W. J.(2015).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 on the entrepreneurial knowledge and job challenge.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6(2), 115-133.
- Lee, J. A., & Ahn, Y. S.(2019). Analyzing Education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73-82.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W., & Chang, S. D.(1999).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merica.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2(2), 57-90.
- Lee, S. J., Chang, Y. K., Lee, H. N., & Park, K, Y.(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ee, W. J., & Hwang, B. Y.(2015). The Chronology of Kore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feature analysis and futur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171-183.
- Lee, W. J., Kim, J. S., Kim, Y. T.(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Quality and Satisfaction to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28(3), 105-131.
- Manning, K., Bieley, S., & Norbuen, D.(1989). Developing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68-76.
- Matlay, H., & Westhead, P.(2007).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in Virtual Teams of E-Entrepreneurs: Case Evidence from the European Tourism Indust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8(1), 29-36.
- Mcmullan, W. E., & Long, W. A.(1987).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nine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61-275.
- Nahapiet, J., & Ghoshal, S.(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ung, E. M., Choi, C, W., Kim, H, K., Oh, S, Y., & Jin, S, H.(201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KYCI) and Defini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2), 117-144.
- Vanevenhoven, J.(2013). Advances and challeng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466-470.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ang, J. H., & Kim, C. K.(2018). The Effects of Perceived Relational Support,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f Yout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6), 74-97.
- Yook, C. H., & Jeon, I. O.(2014)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61-676.
- Zhou, Y., & Yoon, H. J.(2018). A Survey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21(3), 161-201.

The Relations Between Relationship Building Competenc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Shin-Soo, Kang*
Jeong-Woon, Seo**
Myeong-Jong, Kim***

Abstract

There are common features among successful entrepreneurs without regarding to the stages of startup like challenge, growth, leap and maturity stages. We know that the successful entrepreneurs have strong entrepreneurship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through many experiences in the real field of startup ecosystem.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nd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n business startups has been found through many studies. In addition, in most curriculum of startup,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operated like an introduction to the startup education. However, in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and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it is not easy to find other factors related to interpersonal competence except for leadership. In this study, we redefined relation-building competences in consideration of relation-building parts such as self-openness, affinity, communication, empathy and consideration among various competenc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lation-building competences.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relation-building competences between the group of start-up entrepreneurs and the group with no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It was proved that the relation-building competences is important for entrepreneurs. Therefore, in addition to studying entrepreneurship, which is represented by conductivity, innovation, autonomy, and risk sensitivity, the studying of relationship-building competences should be continued. It is expected that various research result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s and relationship-building competences will be reflected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Key Words: Entrepreneurship, Interpersonal Competency,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tartup and Intellectual Propert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skang@cku.ac.kr

** Co-Author, Associate Professor, Startup Support Found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imonseo@ck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Education Result Management Cente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manova@cku.ac.kr